

독서감상문 부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상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상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상

그는 불꽃이 되었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질병과 고통, 배고픔 속에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도 못한 채 일해야만 했던 70년대의 노동자들. 현재가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전태일이 있었다.

‘전태일?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누구지? 분신자살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의 이름을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그의 이름이 지난 70년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낯설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생각해본 적도 없던 일들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제대로 그를 알아갔고 생각해본 적 없던 일들을 알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처참했고 안타까웠고 그리고 아름다웠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곳곳이 아름다웠다.

1. 그는 배고팠고 힘들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다.

전태일의 어린 시절의 느낌을 한마디로 하자면 ‘아슬아슬’이었다. 어찌면 그렇게 아슬아슬한지 아주 조금의 평안도 금방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마치 소설 같았다. 소설에서 이야기의 재미나 전개를 위해서 일부러 첨가해놓은 위기 같았고 이미 정해진 행복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끔 소설을 읽고 있는 줄로 착각하곤 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피발 선 눈동자 속에 알팍한 파도에 흔들리면서 한 작은 물체가 떠나려 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사면을 빼어버린, 나무속처럼 허연, 주먹보다 약간 큰, 카베츠의 속고갱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는 정신 없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45쪽)

나는 위 글의 속고갱이에서 그의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굶주려야만 했다. 전에 아파서 3일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적이 있다. 너무 배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다. 그 때 배고픔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 3일 후에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태일의 기한 없는 배고픔을 보면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배부름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전태일의 어린 시절은 책에서도 나오지만 끝없는 노동과 방황, 그리고 가난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한 학창시절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다. 그는 청옥고등공민학교에 다니던 시절을 가장 행복했다고

한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일까지 도와가면 서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을까. 아침마다 세숫대야를 벌렁게 물 들일 정도로 힘들었는데.

나는 기초지식이 없어 영어와 수학 과목은 이해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다 재미있고, 50분 수업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았다. 정말 하루하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다.(53쪽)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활이 그에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은 너무나 즐거운 생활이었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밝았던 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그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1년도 채 안된 그의 행복은 막을 내려야만 했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학교를 그만 두고 일을 도우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그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떠나야 했다.

그의 공부에 대한 열의와 노력을 보면서 나는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게 되면 자신의 편함을 감사할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 나는 만약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알 수 있었다. 전태일처럼 다른 힘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부 그 하나만을 하는 것인데도

항상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투정부리고 짜증을 내었던 나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

전태일 평전은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했다.

2. '평화시장' 누가 이름을 지은거야?

평화시장. 이름만 보면 이 시장은 평화로웠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이 평화로웠는가? 아니다. 이 시장은 평화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평화시장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힘든 일을 강요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리고 시장 밖의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곳이었다.

다른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만 있을 뿐이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을 평화시장 안의 사람들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주변 환경들은 너무도 열악했다.

나는 평화시장의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을 글로 읽으면서 질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글로 읽는 것만으로도 질리는 일을 그 때의 평화시장 사람들은 직접 겪고 있었다니 너무 놀라웠다. 하루에 커피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병을 키워가면서 14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형제를 위해 일하던 나보다 어린 여공들의 현실과 잠 좀 맘껏 자봤으면 좋겠다는 어린 여공

의 말은 너무 슬펐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인물현대사' 라는 프로를 보았다. 그곳에서는 일하는 여공들이 나왔는데, 글로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보다도 더 심했다. 그리고 도무지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던 사람들과 전태일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었다.

도대체 그 곳이 어떤 대단한 곳이며 그 곳의 기업주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인간을 인간이 아니게 만드는지 화가 났다.

3. 그는 싸웠고, 죽어갔다.

사실 나는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국민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전태일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벌주의사회를 정말 싫어하지만 그 학벌주의사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내 무의식에 이미 그런 학벌주의적인 생각이 박혀 있었나보다.

하지만 곧 무의식적이었던 것이지만 그를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무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어떤 학벌이 좋은 사람도 따라가지 못할 그의 깊은 생각과 순수한 인간성에 감탄했다.

그는 잘못된 현실이라는 강의 흐름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마치 알을 낳기 위해 목숨을 걸

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잘못된 현실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근로 개선이라는 말을 낳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해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상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238~239쪽)

나는 저 글을 읽으면서 '전태일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결심을 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냥 그 흐름대로만 살았다면 그는 아마도 재단사로서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책을 읽으면서 전태일이 하는 일들을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못하고 함께 아파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내가 전태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에서 눈을 감고 그저 흘러가기만 했을 텐데. 저런 결심을 하게 만든 평화시장의 기업주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회가 너무나도 미웠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불꽃이 되어버린 그는 나를 슬프게 했다. 책을 읽기 전부터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그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괜한 원망으로 그의 옷에 '설마' 하면서 불을 붙인 사람이 미웠다. '도대체 어떻게 설마라는 생각이든거지? 석유를 뒤집어쓰고 왔으면 석유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석유로 옷이 젖어 있었을 텐데, 분명 그는 전태

일이 석유를 뒤집어쓰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을 붙였을 거야' 라는 원망의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 친구의 탓이 아니다. 그 친구는 전태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그를 죽인 것은 바로 검은 사회였다. 그 검은 사회가 그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그는 자신의 몸에 석유를 뿌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면 지금쯤 아저씨가 되어서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신을 스쳐지나가던 '행복'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순만 조금 데어도 눈물이 날만큼 아픈데, 전태일은 온몸이 불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알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섰고 불속에서 끝까지 외쳤다. 그의 싸움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슬펐다.

4. 2004년 현재,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없어졌는가.

지금은 21세기의 2004년. 세상은 많이 변했다. 하지만 평화시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평화시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비정규직은 현재의 평화시장인 것이다. 비정규직만이 아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조금은 더 부유해진 우리 사회는 여전히 평화시장을 그림자처럼 끌고 오고 있다. 그들은 힘든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불평등에 놓여있다. 기업주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방금 전 텔레비전에서 비정규직인 박일수 씨가 분신자살을 했

다는 것을 보았다. 이 박일수 씨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기업인 주식회사 인터기업에 입사하여 Co2 용접공으로 일하였었다. 그런데 이 인터기업은 7년 이상 일한 사람 10명을 당사자도 모르게 퇴직시킨 후 그 퇴직금을 사장이 받아서 쓰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기도 하고 각종 수당도 회사가 중간에 가로채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박일수 씨는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은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를 외치며 불속에서 죽어갔다. 안타까운 현재의 일이다. 죽은 박일수 씨의 영정 사진 위로 전태일이 겹쳐보였다.

세상이 변하고 날이 갈수록 발전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전태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토록 사랑했던 노동자들은 세상의 음지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전태일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도 노동자들의 근로 개선을 위해 많은 이들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언제쯤 전태일이 바라던 세상이 올 것인가. 검은 사회는 얼마나 더 또 다른 전태일들을 원하는 것인가.

앞으로의 근로 개선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현재 자본을 위한 대한민국 노동법을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으로 바꾸어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불평등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당신은 진정 어머니입니다.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을 선택한 전태일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전태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어머니의 덕분이었고 그녀는 책에서도 나오듯이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란 말이 어울리는 대단한 분이였다. 노동 운동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말리려 했지만 결국은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죽음 후에는 그의 뜻을 계속 이어왔다.

노동 운동을 하면서 고생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결국은 숯덩이가 되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어달라는 아들은 보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내가 그의 어머니였다면 아마도 모든 의욕을 잃고 쓰러져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죽어버린 아들을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뜻을 이어갔다. 그가 죽은 후부터 계속해서 노동자 근로 개선을 위해 아들 대신 곳곳이 싸워온 것이다.

그녀는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군부독재에 의해 수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청계노조를 이끌어 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노동교실을 열어 노동자들이 배움을 접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운동의 현장마다 앞장서 함께 싸우고 다쳐가면서도 노동자들을 보호했다. 그리고 모두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다. 전태일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람이듯이 그녀도 전태일 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머니였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던 '인물현대사'에서 어머니와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이 끌어안고 울던 모습과 아들 앞에서 '너와의 약속을 이제 지켰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들은 나의 가슴을 찡하게 하였다.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외우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후에는 끊임없이 싸웠고 노동자 근로 개선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나는 이제 그녀가 앞으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태일도 죽는 날까지 그러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만 살아왔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들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무거운 기침

『민주화과정과 정치개혁』을 읽고

나는 정경환 교수의 한국현대정치사연구「민주화과정과 정치 개혁」편을 읽고, 그 책에서의 뜻 깊었던 부분과 나의 느낌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일단, 세세한 부분의 감흥을 소개하기에 앞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전반적인 느낌은 모든 사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상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는, 민주주의가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한과 피가 서려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이 내겐 매우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거의 모든 사건이 그 뒤의 사건과의 연계성이 있었고, 저마다 특수성을 지니지만 민주화로 투쟁 하나 하나가 우리 나라 민주화의 길에 없어서 안 되었을 중요한 사건들로 느껴졌다. 또한, 제 3세계의 민중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 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과거의 정신과 역사적 교훈이 현실과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성을 지닐 때 그 의미는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과

거사는 현재의 모순과 연결될 때 그 의미가 확산된다.' 라고 했다. 하나, 지금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는 한 번은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이 여야 세력싸움의 일편이라면 재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지는 우리적인 것 중에서도 버릴 것과 발전시킬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선동을 위해 정치인들이 그 가치를 막론하고 우리적인 것들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주시하고 볼 일이다.

또 이 책에서는 '미국을 위시하여 해외에서 정치학을 수학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정치학자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신진정치학자 중 미국을 위시한 서구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심지어는 무작위로 인용하여 한국정치현실에 대입하려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법 또한 자민족 중심주의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생성조건이 다른 외래이론을 억지로 한국 상황에 맞추다 보면 논리적 비약과 비현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책에서 지적한대로 국회에서 청문회나 회의를 할 때 적지 않은 수의 정치인들이 미국, 유럽 등의 정치와 법을 예로 들고 우리 상황에 대입하기를 강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마 정치인들 중 미국 혹은 유럽에서 수학하고 온 경우들이 태반이라 그럴 것이다. 나 또한, 미국에서 수학할 계획을 가지고, 미국을 위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목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종전 직후 해방당시 김구 선생이 이번 해방에 한 일이 없다며

외세의 개입을 우려하였다는 것에 나는 과히 놀랐다. 그토록 바래왔던 해방이었으려면 감정적으로 이끌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후의 일에 대해 통탄하셨던 점이 말이다. 나는 이제까지 8.15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탄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하고 막연히 생각하여 긍정적으로만 여기었는데, 이 책에서는 8.15가 분단조국의 잉태가 내재되어 있다 하여 긍정적 의미를 지나치게 평가하여 만족감에 도취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반도 해방은 ‘외세, 즉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철저히 부속된 결과물’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아마도 가장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다. 또, 필자는 8.15후에 임시정부의 지도노선 분열이 분단에 크게 기여했다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노선의 차이를 극복하여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동북공정을 위한 중국의 치밀한 계획으로 알려진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분명 여야가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책에서는 북한을 볼 때 흡수 대상이라기보다는 번영과 자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대상으로의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우리 학교의 도덕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다. 그 분은 그에 대해 우리에게 이미 굳어버린 ‘북한과의 통일은 우리가 조금 밀지는 것이라는, 그리고 북한을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셨다. 심지어는, 도덕책의 단어 사용조차 스스로 수정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했다. 솔직히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기본적으로 저런 생각이 있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다른 장보다도 미군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그가 기술한 내용을 다른 사람의 의견수렴 없이 독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스스로를 점령군이라 했던 미군정, 민중들에게 불만의 대상이었던, 철저히 이해타산적으로 행해진 그들의 현상유지적 태도에 대해 막연한 악감정을 떨쳐내려 노력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 미군정이 발표한 내용에서 그 당시 좌익과 우익의 대립을 포함하여 상당부분 이해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일본인들이 미군에게 “현 상황을 이용하여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려는 공산주의자들과 독립 선동가들이 날뛰고 있다”라고 현상을 과장되게 보고하였고 미군이 일본인을 신뢰하여 우리 나라에 악감정을 가지었던 그 당시의 상황, 이를 그대로 들으면 미군에 대해 적잖이 기분이 나빠진다.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미군은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빨리 항복하자, 한국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재한 상태로 황급히 진출하게 되었고,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정보소스를 현실적으로 일본인들밖에는 얻을 수 없었던 실정이었다. 해방이전에 우리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부당한 식민 지배를 선진국들에 알리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시도들이 일본에 의해 저지되었었던 상태였고, 국가가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이해타산을 맞춰보지 않고 행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기에, 미군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도

필시 그 전에 우리를 식민지배하여 잘 알고 있던 일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사전준비 없이 온 미군이 기존관리들의 친일행적을 이유로 강등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모든 사회분야의 인사를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었겠는가? 미군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에 와서 평해 보자면 절대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한 행동일지라도, 그 당시 미군의 입장에서 볼 때, 원래부터가 우리나라를 일정기간동안 신탁통치할 요량으로 온 것이기에 당연히 통치 대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그 이전에 국정을 맡고 있었던 친일파에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필자도 인정할 바이지만, 그는 적잖이 흥분해 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필자는 미군 장교들의 공포 내용을 많이 인용하였는데, 그 속에는 한국인들을 준적 국민으로, 일본인을 벗으로, 스스로를 정령군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정이 현상유지적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시행한 토지제도개혁, 경협자라는 명분으로 식민지 통치기구에서 봉사한 관공리를 여과 없이 등용한 점은 그 당시 좌익의 지식인들의 입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려된다.

우리 세대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그 대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힘이 들었다.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 차별의 심도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는데, 꼭 그 당시의 호남은 한국의 오키나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에는 그런 차별을 전혀 느낄 수 없음에 조금은 뿌듯한 감도 들었다. ‘우리 세대쯤에는 지역감정의 거의 완벽한 해

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다.

또 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의 중심에 있는 4.19혁명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의 희생이 많았고, 또한 그들이 내세운 결의문의 내용에 보면 ‘행정부는 이 이상 우리나라를 세계적 후진국가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젊은이들의 민주화로의 열망에 의한 투혼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마음에 서렸다. 학생들이 주로 항거한 이유에 대해 고인이 된 김성식 교수께서는 ‘현실적 이해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 하셨는데, 현대에는 학생들의 성격이 많이 바뀐 듯 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씩씩하기도 했다. 글쓴이의 의견-4.19가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백번 공감했다. 특히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과 국회의원들이 4.19정신을 가슴깊이 새기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면 했다.

오늘 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양은 무엇일까?

『21세기를 바꾸는 교양』을 읽고

피를 부르는 전쟁과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친일의 대가로 얻은 땅을 돌려 달라 소송을 걸며 국가안보를 빙자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이 21세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양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양이라는 것이 과연 이 21세기를 바꿀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난 이 책 ‘21세기를 바꾸는 교양’을 읽었다.

이 책은 우리시대의 ‘진보적’ 교양인 7명의 강연 내용을 모은 것으로 한국의 근대, 역사, 진보, 노동, 대중문화 등 7가지의 색깔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사학과를 지망하는 나에게 좌절의 역사, 희망의 역사라는 주제로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파병문제와 관련지어 현대사를 날카롭게 해석한 한홍구 교수의 글은 가장 흥미로웠다.

이 글에서는 특히 금기의 현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역사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를 표현한 “묻지 마 다쳐”라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금기의 현대사로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얼마 전 대표적 매국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부평 소재의 미군기지 땅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기억났다. 특히 문제의 미군기지가 우리 집 근처라서 나는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땅이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하여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땅이었던 것을 식객인 송병준이 강탈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친일파의 파렴치한 만행에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의 한홍구 교수가 일제 청산이 오히려 민족세력 청산으로 거꾸로 뒤바뀐 불행한 역사의 전환점으로 반민특위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건을 언급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왜 국회가 반민족행위자를 척결하는 법을 아직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법이 일찍이 제정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 이유가 궁금해 알아보니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쥐었다 놓았다 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수 없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그들의 후손까지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매국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일부 사람들은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 행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상의 죄를 묻는 것은 연좌제가 아니냐고 하기도 하지만 과연 나라를 팔아먹어 얻은 땅을 그것도 원래 미군의 땅인데 시민단체들이 몇 년 동

안 농성을 해서 되찾은 걸 가지겠다고 주장하는 친일파의 후손들은 과연 자신들의 행동이 정의에 준한다고 생각해 보았을까?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를 다룬 글 속으로 빠져 들었다. 나는 사실 이라크 파병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었지만 지난번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살당한 사건은 내게 이라크 파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직접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왜 20살의 젊은 청년이 청운을 꿈을 꺾지도 못하고 이라크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한홍구 교수의 글을 읽고 나는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 전에 나는 솔직히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은 싫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나는 정말 제목 그대로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우리가 파병을 안 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책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무당을 따라서 작두를 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떡을 먹은 셈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자행한 전쟁에 계속 파병을 해왔다. 자칭 국익을 위해서. 과연 파병의 대가가 되는 국익이 그렇게 큰 것일까?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의 요구에 의해 파병을 한 적이 있고 이미 고엽제로 인해 많은 참전병들이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베트남 인민 학살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썼다. 과연 베트남 전쟁으로 벌어들인 10억이 과연 이러한 참전병들의 고통, 역사적 오명과 견줄 만한 것인지 파병 찬성자들에게 묻고 싶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벌일 전쟁에도 계속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요구 할 것이다. 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의 총구는 북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지는 않을까? 미국에게 질질 끌려서 명목상 국익을 위해 이러한 일이 벌어질게 될까봐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의 마지막 장은 나에게 가슴 깊이 사무쳤다. 나는 지금까지 촛불시위에 참여해서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우습게 생각했다. 그렇게 시위해봤자 세상이 바뀌겠냐고.

이 글에서 한홍구 교수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의 작은 기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뀐다, 이것이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 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수록, 지금 당장은 전쟁을 막을 순 없어도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가져갈 게 점점 없어진다고.

이 글에서 강연의 사회자는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 고통으로 흐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다” 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했던 이라크 아이들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비뚤어진 현실을 보고도 안일하게 구경만 하고 있었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나의 탓이 아니었을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졌다.

또 인상 깊게 읽은 글은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강연한 홍세화의 글이었다. 이 글은 나에게서는 어렵게 느껴

졌지만 이 글에서 나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알고 나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며 하나뿐인 인생을 이롭답게 살기 위해서는 진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전에 진보라는 것에 문외한이었는데 이 글을 읽고 진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읽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말이 민주공화국이지 사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다. 그 사례를 우리는 신문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보안법 폐지가 떠올랐다. 국가 보안법은 말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사실 국가보안법의 군사기밀보호나 간첩죄는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 남용되어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이용되어왔다.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글의 저자는 민주주의의 어원인 공공성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무상교육, 무상 의료 또한 받기 힘들어 졌다고 말한다. 병자가 생기면 당연히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이 부분을 읽으며 나는 이번 총선 때 토론회에서 민주 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왜 식물인간인 딸을 둔 아버지가 병원비를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딸의 인공호흡기를 빼 숨지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는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 됐

다면, 공공성·공익성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참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것이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 대중매체가 만든 의식화에 빠져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이었다. 특히 나는 이 글의 마지막 구절에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존재에 미학을 부여하라는 구절이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뿐인 나의 인생에 나의 권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나를 표현하고 살아왔을까? 강제 보충수업, 강제야간 자율학습, 이미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나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나를 표현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내 자신이 한심해졌다. 이미 나도 이 글에서 언급한 의식화에 물드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는 많은 걸 깨달았다. 특히, 내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였는지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해주었으며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음도 배웠다.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면서 내가 나의 존재를 알고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의 해답을 알려준 고마운 책이다. 이 책의 저자 7분의 글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어두운 우리 사회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다니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지막을 장을 넘길 때는 나의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흰둥이네 할머니』을 읽고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 그래. 영우로구나. 근데, 우리 강아지가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구!”

“아니예요. 그냥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했어요.”

“오호라~ 그랬어? 이 할미도 우리 영우, 많이 보고 싶은데.....”

“저도요, 할머니! 근데, 아픈 데는 없으시죠?”

오랜만에 작은아빠 댁에 계시는 할머니께 전화를 했다. 지난 번, 설날 때 뵙고 나서 오늘이 처음이다. 나는 ‘효도’라는 낱말의 뜻을 전혀 모르는 아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쁜 아이임에 틀림없다.

작년 추석 이틀 전에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땐, ‘앞으로는 친할머니한테 잘 해드려야지’ 라고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할머니께 잘 해드리기는커녕, 설날 때 세뱃돈만 챙기곤 전화 한 번 안 해드렸던 것이다. 어렸을 적부터 나를 그토록 귀여

위해주신 할머니데, 겨우 3년 떨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모른 채하다니. 정말 할머니께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그래도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늦게나마 할머니께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게 바로 ‘흰둥이네 할머니’ 라는, 이 책 덕분이지만!

내가 읽어보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읽으시곤 눈물을 펄펄 쏟았던 이 책은, 노인의 인권문제를 다룬 창작 동화집이다. 송언 선생님이 쓰셨고 현암사에서 펴냈는데, 노인학대 문제라든가 소외된 노인의 삶을, 조금의 꾸밈도 없이 솔직하게 동화 속에다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그런지 어둡고 슬픈 얘기들뿐이어서, 책을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려야 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푸대접을 받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실까? 그리고, 이토록 나쁜 자식들이 세상에 진짜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은 나한테 충격적인 것이었다.

총 6편의 얘기 중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흰둥이네 할머니’는, 매일같이 아침만 먹고 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흰둥이’란 강아지와 함께 밖으로 내쫓는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용돈도 한 푼 드리지 않은 채 저녁 7시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며 할머니를 구박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가출까지 해버려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리고, 결국엔 할머니의 단짝 친구였던 흰둥이만 남는다는 가슴 아픈 얘기였다.

그래도 거기까진 참을 만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술과 노름으로 다 탕진하고도 마지막 남은 과수

원을 팔아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삼으로 때린 천하의 불효자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할머니 얘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아들가족에 의해 방안에 갇혀 동물처럼 사육 당하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 얘기, 자식들의 탐욕스런 유산상속 싸움에 지쳐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신 할아버지 얘기, 혼자 몸으로 아들 넷을 훌륭하게 키워 결혼을 시키고도 남의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며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시는 할머니 얘기 등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내용들이었다.

송언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불효막심한 얘기들을 글로 쓰셨을까? 우리더러 뭘 보고 배우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우리 어린이들이, 이 책에 나오는 못된 자식들처럼 살지 말라고 쓰셨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알며, 불쌍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보면 따뜻하게 보살피 드릴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 이 되라는 뜻으로 쓰셨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이 책을 읽으시며 왜 그렇게 평평 우셨을까? 눈물은 좀 나더라도 평평 울 정도로 슬픈 내용은 아닌데. 돌아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을까?

내가 궁금해 하는 눈치를 보이자, 한참 망설이시던 엄마가 내게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셨다. 사실은,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쓸쓸하게 혼자 사셨다는 것이다. 물론 엄마 말씀으론, 외할머니께서 '자식들의 짐이 되기 싫다' 며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바람에 방을 따로 얻어드렸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외숙모께서 가출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난, 그동안 외할머니께서 혼자 사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돌아오는 명절 때마다 외할머니를 외삼촌댁에서 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외할머니께서 외삼촌과 함께 사시는 줄로만 알았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동안 외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 나는 진짜로 맹세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할머니한테 정말 잘 해드릴 것이다.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편지도 자주 쓸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빛도 갚고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 거라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게 되면, 내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으로 맛있는 음식도 사드릴 것이다. 이미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는 아무 것도 해드릴 수 없지만, 그 외할머니 뒤편까지 친할머니께 효도를 다할 것이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사회속의 왕따, 아웃사이더. 그들은 더이상 왕따기 아니다

『아웃사이더의 말』을 읽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꼭 듣게 되는 답이 있다.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정말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이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다. 꽤 오래 전부터 학생들 사이에는 ‘왕따’가 있다. 평범한 학생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르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신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그런 학생들을 따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아니 따돌리기만 하면 다행이다. 요즈음에는 한대씩 치고 지나가거나, 놀리거나, 비웃기 일쑤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있거나 아니면 몇 번 저항을 하다 포기하고 그냥 지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왕따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다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왕따’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뿐이다. 내가 이쯤 얘기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책을 읽고서 왜 갑자기 학교의 왕따 이야기를 꺼내냐

고…….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가? 학교와 사회. 왕따와 아웃사이더. 비슷한 상황. 아니 똑같은 상황이다. 정말 학교가 작은 사회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

왕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른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이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학교에서는 왕따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까?

평화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 -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총을 들지 않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의견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에 모진 감옥생활도 견뎌 내면서 그들의 신념을 지킨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실재 대학생들에게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는 설문 조사를 하니 70%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표했다는 결과가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다.

‘남자는 자고로 군대를 갔다 와야 진정한 사내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나니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을 어찌면 쉽게 받아들이

기 힘들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의견을 아빠한테도 여쭙봤는데, 역시나 반대의 입장을 표하셨다. 그들이 힘든 군대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신념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그리 소란을 떠느냐는 반응을 보이셨다.

반대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이런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나도 두 달 전쯤에는 친구들과 함께 한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 입장에서 서서 열띤 토론을 벌였었으므로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간다. 그땐 나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한번쯤 다녀오는 군대를 교리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는 총을 잡지 않겠다는 생각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누군 사람을 죽이고 싶겠는가?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가 웬지 너무 튀는 행동으로 밖에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반대를 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며칠 전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외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황선호라는 분이였다. 이 분은 3년 동안 군복무 생활을 마치고 제대까지 하신 분이였다. 이 분이 왜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재판에 서게 되었는지 정말 의아했다. 하지만 군대제대 후 성서를 공부하면서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신념 때문에 예비역 소집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서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다. 만약에 나라면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가면서까지 하루면 갔다 와서 편

하게 지낼 수 있는 예비군 소집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황 선호씨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예비군 소집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이것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지금 대만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만도 중국과 대립된 관계에 처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런 대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것이 군대에 복역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또한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만에서 대체복무 하는 상황을 보니 군복무기간보다 오랫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하고, 대체복무 기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데도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 대체복무는 군대생활보다 안전하다고 해서 불만인 사람들도 있다. 한해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반해서 대체복무를 하면 그러한 위험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사에 대해서 대체복무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군대의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지 대체복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또한 작년에 '말해요 찬드라' 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가난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돈을 벌러 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갖은 수모를 겪는 것을 책을 통해 접했을 때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웠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동아시아로 일을 하러 갔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일들을 벌써 잊은 것인가?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면서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70~80년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만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힘들게 찾아온 노동자의 권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피부색을 가리지 말고 국적을 가리지 말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공장이 있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독이 되는 관심과 눈길

나는 지나가다 만나거나 버스 안에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쳐다보기보다는 오히려 외면하면서 관심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나만이라도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 건 꽤 오래전부터이다. 아마 대중목욕탕이라는 곳을 가지 않으면서부터 내가 이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기억된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나. 아프기는 커녕 너무 활발해서 탈인 나이다. 그러다보니 몇 개월에 한번씩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는 날이면 친구들이 어디 아프냐고 묻기 일쑤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이라는 말로 모든 걸 대신하게 된다.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선천성 혈관기형이라는 질병이 있다. 다리 쪽에 혈관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징그럽다고 느낄 정도로 많이 뭉쳐있다고 표현해야 하나? 내가 아기였을 때부터 그런 것이어서 나와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닌 것 같다. 초등학교 때까지 매주 엄마, 동생과 함께 다니던 대중목욕탕. 하지만 어느 날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시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말을 하였고, 그 한마디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거 왜 그래? 맞아서 멍든 거야?’ 라고 하신 그 아주머니 말씀. 그 이전까지는 내가 못 듣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픈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에게 묻던 그 아주머니 말씀. 아주머

나는 걱정스러워서 물어보신 말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게 다른 사람들 시선에는 그렇게 비치는 건가? 그러면 내 친구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라는 생각이 전에는 의식하지 않고 지내던 내 신체의 일부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게 하고,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엄마가 목욕탕에 가자 그러면 핑계를 대서 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왜 안 가느냐고 다그치시는 엄마한테 둘러댈 핑계거리가 없어지면서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 이후로 엄마도 나에게 같이 목욕탕에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이 지나가셨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자신 없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목욕탕에 가지 않는 일도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외국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동정의 눈길로 쳐다보거나, 알아듣지 못 할 거란 생각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행동. 그 하나하나가 모두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조금은 다르지만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해지고 싶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지나친 관심과 눈길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그냥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바라보고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조금 다를 뿐이다.

‘아웃사이더의 말’을 읽으면서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많은 아웃사이더를 만났다. 하지만 이들을 진정 아웃사이더라고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냥 조금 생각이 다르고, 몸이 불편하고, 피부색이 다를 뿐이다.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들도 그냥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 하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아웃사이더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하나의 변명거리가 아닐까? 웬지 더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에... 앞에서 말했던 학교 내의 왕따도 어찌면 보통의 아이들이 자신이 다른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현상일지도 모른다. 성적, 외모 등으로 학교 내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수의 아이들과 다른 점이 보이면 그 점을 이유로 왕따를 시키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다. 더 많은 경쟁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아웃사이더라 불리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런지.

하지만 그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그들이 아웃사이더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이니깐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감히 아웃사이더라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독서감상문을 마치면서...

책을 읽으면서 아웃사이더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도 어떻게 보

면 아웃사이더 중 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딸'을 읽으면서 알게 된 타투이스트는 본문에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잊지 못할 거 같다. 문신은 무조건 조폭, 날라리들만 새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문신도 또 다른 예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쯤 접해보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